

CHAPTER 19

고등학교에서 함께 배우며 즐긴 L^AT_EX

박승원

경기과학고등학교 3학년

19.1 텍과의 첫 만남

내가 텍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2014년 여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내가 지난 3년간 다녔던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연구중심의 과학영재학교로서,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R&E (Research & Education, ‘알앤이’라고 읽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 과목별로 교수급 전문교원이 한 분씩 계셔서, 그 R&E 프로그램을 총괄하였다. 그 당시 나는 다른 2명의 친구들과 수학 관련 R&E를 진행했는데, 어느 날 수학 전문교원 선생님께서 수학 R&E를 하는 친구들을 모두 모아,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다. 그때 배웠던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텍(T_EX)이다.

이전까지 아래아한글, MS워드 등의 WYSIWYG만을 써오던 나에게, 텍과 같은 WYSIWYM 방식의 문서 작성은 문화 충격과도 같았다. 그때는 HTML도 다루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텍을 사용해보며, 왜 선생님께서 그렇게나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우선 수식이 아래아한글, MS워드와는 차원이 다르게 입력이 편리할 뿐

더러 결과도 깔끔했다. 또한, 지금 내가 텍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상호참조(cross-referencing) 기능이 굉장히 좋았다. 텍의 상호참조 기능을 사용하며, 이전에 대학부설 영재원에서 과제연구 보고서를 한글로 작성하며 새로운 그림을 삽입할 때마다 본문 안의 그림 번호를 업데이트하며 고생하던 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누구나 그러했을 듯이, 처음 텍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많이 어려웠다. 주요 명령어도 다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기능 하나 사용하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입장벽을 넘고, 2015년 초여름에 TeXstudio와 같은 편리한 텍 편집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해결되었다.

19.2 사건의 발단

나는 점점 더 많은 명령어들을 익히며, 이러한 유용한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좋은 교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lshort*¹와 같은 훌륭한 교재도 있었지만, 그러한 기존의 입문서들은 내가 한번에 소화하기에는 너무 길거나, 읽고 따라해보며 텍을 배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2015년 8월, 학교 친구들과 함께 유용한 텍 사용 팁들이 포함된 텍 입문서를 만들고, 우리들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텍 용례들을 업로드해 공유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때마침 나는 그 무렵 GitHub을 접하게 되었고, 코드를 공유·공동편집·배포하기에 적합한 사이트라고 생각하여 현재의 gshslatexintro²라는 organization을 GitHub에 만들고, GitHub Pages를 통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텍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일에 참여했고, 우리는 이렇게 텍 입문서를 텍으로 제작하고, 각종 팁들을 공유하며 함께 텍 실력을 기를 수 있었다.

¹The Not So Short Introduction to $\text{\LaTeX}2_{\epsilon}$

²<https://github.com/gshslatexintro>. gshs(‘경기과학고등학교’의 영문 이니셜) + latex + intro

19.3 경기과학고 텍 사용자협회

19.3.1 협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

사실, 수학 전문교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던 R&E 보고서 텍 양식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고, 추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기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각 장마다 **figure**의 카운터(counter)가 초기화되고 있었고, 심화 R&E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지도교수 입력란이 없었다. 또한, 졸업논문의 경우 교내에서 지정된 형식에 맞는 BibTeX용 bst 파일이 없었다.

어느 개인의 텍 실력으로는 그러한 오류들을 해결하기 어려웠다. 또한, 교내 학사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있는 양식이 그대로 배포되고 있었고, 우리가 오류를 발견할 때마다 담당 선생님께 찾아가거나 전교의 몇 되지 않던 텍 사용자들에게 공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앞서 19.2절에서 언급되었던 GitHub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교내 텍 양식에 관한 오류 제보를 받고, 그것을 git으로 공동 편집하여 웹페이지를 통해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양식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양식을 직접 만들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러한 교내 텍 사용자간 교류의 중심지를 ‘경기과학고 텍 사용자협회(GSHS TEX Society)’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때가 2015년 12월이었다.

19.3.2 협회의 발전

협회가 설립된 뒤, 우리는 텍 전도사가 되어, 교내에서 텍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기존의 딱딱한 텍 입문서의 형식을 벗어나기 위해, beamer로 텍 입문서를 만들었다. 물론 이 입문서의 텍 파일들 또한 공개하여, 학생들이 beamer를 공부할 계기도 마련했다. Overleaf에서 제공하는 입문서를 GitHub에서 fork하여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문서들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총 3번의 크고 작은 ‘경기과학고 텍 워크숍’을 열었다.

입문서 외에도, 어떤 친구는 선형대수학 공부를 텍으로 해서 100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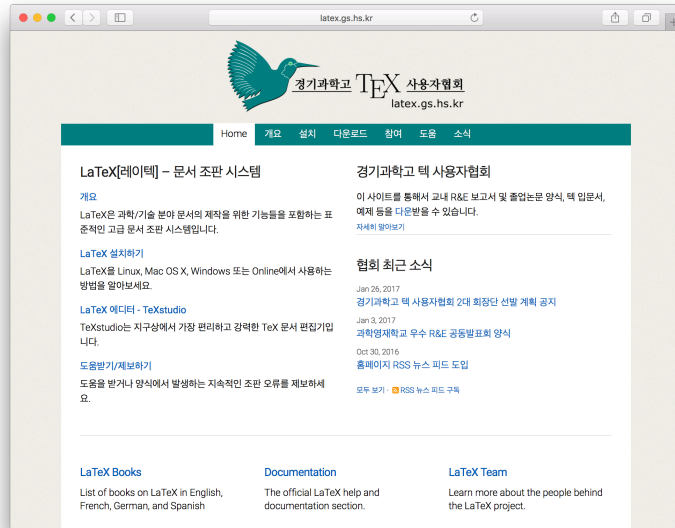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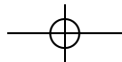


그림 19.1 경기과학고 텍 사용자협회 홈페이지

분량의 답지를 만들고, 교내 작곡·작사 동아리인 ‘매나니’에서 활동하는 친구는 beamer로 높은 질의 화성학 강의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아래아한글이나 MS워드, 파워포인트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서의 양을 보고는 텍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텍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 모든 용례는 텍 코드 또한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를 보고 따라해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한 결과 동기들은 물론 후배들, 선생님들께서도 텍에 큰 관심을 보이셨다. 한 선생님께서는 사설 서버 및 도메인으로 운영되던 협회의 홈페이지를, 교내 서버 및 경기과학고 도메인(<http://www.gs.hs.kr>)의 서브도메인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것이 지금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협회의 홈페이지, <http://latex.gs.hs.kr>이다.³

³ 홈페이지의 형식은 The \LaTeX Project의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CC BY 4.0 라이선스 하에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현재 경기과학고 텍 사용자협회에서는 교내 R&E 보고서, 졸업논문, 삼성 휴먼테크논문대회 등의 텍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학생/대학생 수준에 걸맞는 여러 가지 텍 용례 및 입문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협회가 경기과학고 선생님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해 주신—
쾌적한 한글 텍 사용환경을 개발하는 데에 힘써 주시는 KTUG, The L^AT_EX Project 개발진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